

언약으로의 초대

본문 신 29 : 1 - 13절

David HONG

1. 전체배경

29장은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며, 일명 ‘모압언약’이라는 하느 언약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모세의 3번째 마지막 설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단락은 전형적인 고대의 언약 체결식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과거회상’, 과거의 승리의 회상, 그리고, 언약 체결자들이 거론됩니다.

2. 해석 & 적용

1)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라.

구원이 있었기에 언약이 있습니다. 구원은 한 주인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어 새로운 주인에게 옮겨진 사건입니다. 그것은 언약의 성격을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구원자와 구원을 받은 백성의 관계입니다.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그것도 마음과 뜻을 다한 사랑으로 해야 하는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직접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없었습니다. 몸만 빠져 나왔을 뿐, 마음은 여전히 노예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러가지 방편으로 자신이 살아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여전히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들의 영적인 마음의 발의 상태가 나빠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집중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잠시라도 좋으니, 산책과 묵상,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2) 신실한 광야의 인도하심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신실하게 그 아이를 양육하시는 부모처럼 철없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셨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만끽하게 하셨습니다. 옷과 신발을 주셨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때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 가나안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이 차지하게 하심으로써, 가나안 서편 땅도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에서도 그 땅과 그 땅의 우상이 아니라 광야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넉넉하지 않아도, 늘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우상들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도록 하시려는 손길입니다. 오늘도 이 넉넉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베푸시며,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이 캔버라의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3)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

누가 언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언급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도자부터, 이스라엘의 남자와 유아들, 그리고 아내들, 더 나아가 이방인들과 객과 종들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언약에 충성을 다집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누구든 언약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그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복을 나누고, 통로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